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Richard B. Gaffin, JR*

황창기 역(조교수, 신약신학)

Murray교수의 조직신학 논문중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두 편의 글이 있는데 이것이 1963년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에 실렸다. 이 두 논문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Murray교수가 은퇴하기 2년전에 쓴 것으로 탁월한 학자로서 이 분야에 오래 종사한 나머지 매우 성숙한 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두 편의 글 중에서 둘째 논문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관계를 논하였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가 조직신학의 본질과 임무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신학 자체와 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여러 해 동안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둘째 논문 속에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돋보인다고 하겠다.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논하겠는데 본고에서 Murray교수와 다른 개혁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 점에 관하여 쓴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라도 제한된 영역을 다루면서, 너무 협소하고 외소한 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신학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차츰차츰 관심거리로 제기하고 있는 점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I

처음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이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신학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것이요, 현대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개혁정통주의란 선에서 볼 때 사실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총괄적으로 요약한 전체적 윤곽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Gaffin 박사는 미국 Westminster신학교 신약과장으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Th.M 논문은 조직신학에 관한 논문이었다. 본고는 *The New Testament Student Theology* Vol.3(1976) pp. 32-50에 수록되었는데 그 뒤에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에도 실렸다.
1) "조직신학" Vol.25, 2(May, 1963), pp. 133-142. 그리고 "조직신학: 둘째 논문", Vol.26, 1(Nov., 1963), pp. 33-46.

로서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면, 조직신학 또는 교의학이란 교회 그 자체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Origen의 '제일원리에' 관하여 (De Principiis), Augustine의 Enchiridion, Thomas Aquinas의 '신학대전'(Summa), Calvin의 '기독교 강요' (Institutes), Turretin과 Gerhard의 저서와 같은 17세기 개혁주의와 루터교 정통주의의 맥락에서 나온 여러 저서와, 또 Charles Hodge와 Herman Bavinck와 같은 좀 더 최근의 인물들의 저서들은 교회가 기울인 교의학적 추구에서 볼 때 그 기간의 장구성과 확고한 지위를 누리는 점에서 모두 기념비적이다.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 구별된 과목으로 취급된 성경신학은 비교적 새로 운데다가 오히려 문제거리가 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²⁾ "성경신학"이란 표현은 18세기 초에 독일 경건주의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다. 거기서 그것은 일종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의 일부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정통주의(루터교) 교의학에 추상적이며 다른 비 성경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반동이었다. 이 반동이 어떻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는 찢혀두고³⁾ 경건주의에서는 성경신학이 새롭거나 특수한 과목으로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나아가서 그것은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볼 수 있는 성경의 영감에 관하여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견해와 결부된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에는 그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다. 성경신학이란 말이 이제 독자적인 연구과목으로서 매우 자주 나타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전은 주로 독일의 계몽주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성경의 영감과 정경적 단일성을 합리주의적으로 거역하며 또 인간의 자율성을 스스로 내세우며 그것을 분명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또 경건주의에서와 같이, 기독교 정통주의가 반동의 요소를 두드러지게 이 합리주의를 배격하고 있으나, 이 정통주의는 특히 성경의 역사적 기원과 본질을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J.P. Gabler(1787)의 Altdorf에서의 취임 연설은 이 과

2) 이 역사는 여러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밝혀졌다. cf. eg. the Surveys of O. Betz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New York: Abingdon, 1962), II 432-437, Martin Kähler in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Grand Rapids: Baker, 1952), II 183-185, 그리고 좀 더 길게는 W.J. Harrington, *The Path of Biblical Theology* (Dublin, Gill and Macmillan 1973), pp. 19-259 획기적인 개관은 H.J. Kraus가 시도하였다. *Die Biblische Theologie: Ihre Geschichte und Problematik*(Neukirchener Verlag, 1970).

3) 그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현재로서는 그 최고 우선권은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안에 일어난 제반 발달상황을 분석한 것에 그 최고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분석은 주로 면밀한 탐구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통주의에 또한 동정적인데, 특별히 성경의 영감론과 최종적 권위에 집착하고 있다.

목의 내용을 규정하며, 또 그 이후의 진전에 관한 윤곽을 설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 연설 제목 자체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이 입문적인 강의 내용에서 성경신학과 교의학의 대조점이 그 윤곽을 이루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Gabler의 입장의 핵심은 성경신학은 역사적이고, 그에게는 이 과목이야말로 말로 순수하게 서술적(descriptive) 과목으로서, 성경 저자들이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며 또, 반면에 교의학은 교훈적 또는 규범적(normative) 과목으로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철학과 이성의 사용에 근거하여 믿음을 그 당대에 맞게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둘이켜 보건데, Gabler는 "역사 비평적" 전통 속에서 제 경향들을 불러 일으켜 그 전통은 현재까지 그 발전을 두드러지게 모색해 오고 있다. 교의학에서부터 성경신학의 실제적 분리는 특히 결정적이었는데 성경연구상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주의의 위기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경신학의 최종적 결과는—오늘날 거개가 "비평적인" 어투—교리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성경은 단일성을 나타내지 않고 다양하고 또 심지어 경합적인 제 신학의 복합성을 포용하기도 한다.⁵⁾

여기서 지금까지 관찰한 것을 요약하자면, 성경신학은 하나의 구별된 과목으로서 먼저 합리주의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며, 또 전통적인(정통주의) 기독교가 특히 그 교의학에서 성경의 역사적 성격을 살리는데 실패한 점에 대한 반동으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II

이제 성경신학의 발전과정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그 과목이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특수한 신학 과목으로서 그 뚜렷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유용한 출발점은 Geerhardus Vos가 Princeton 신학교 교수회에서 1893년 가을부터 성경신학 교수로서 임명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진전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문제는 만족하게 대답하기에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1894년 5월에 행한 그의 취임연설에서 Vos는 신학교에서 새로운 학과장의 자리에

4) *De justo discrimine theologiae biblicae et dogmaticae regundisque recte utriusque finibus*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정당한 구분 및 그들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한계에 관하여) 독일어 번역 O. Merk, *Biblisch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in ihrer Anfangszeit*(Marburg: N.G. Elwert, 1972), pp. 273-284.

5) E.g. S. Mowinckel, *The Old Testament as the Word of God*(New York: Abingdon, 1959), pp. 16-20. 그리고 Käsemann의 아주 강한 논지 "신약정경과 교회의 연합"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Studies in Biblical Theology, 41, Naperville, Ill: Alec R. Allenson, 1964), pp. 95-107.

오른 것을 의식하면서 성경신학을 특별한 과목으로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밝히고 있는 그 입장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과목을 의존하고 있는지는 실제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⁶⁾ 이 때에 Vos에게 주어진 임무에 관하여,⁷⁾ J.A. Alexander와 C.W. Hodge의 가르침과 특별히 관련지어 지적되는 것은, 성경신학이 전문적인 의미에서 Princeton교과과정⁸⁾에 실제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이 사람들의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그들의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개념의 확립 면에서 말하자면, Vos의 개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특수 총론(special introduction)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⁹⁾

이 시기 동안에 Princeton교수들이 쓴 주요한 글들은 우리의 의문을 푸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C. Hodge는 그의 조직신학 첫 페이지에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의 직능은 성경의 사실을 발견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후자 직능은 이 사실들을 취하여 서로서로의 관계 및 다른 관련된 진리의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그들을 옹호하기도 하며 그리고 조화와 일관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¹⁰⁾ 여기서는 성경신학에 관한 개념이 더 확대되지도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규명되지도 않고 있다. 성경신학이 조직신학과 대조된다는 의미로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성경신학은 오히려 더 넓은 의미로 석의(exegesis), 또는 주경신학(exegetical theology)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 같다.

신학 백과사전에서, A.A. Hodge는 성경신학을 주경신학의 한 분야에 속

6) *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as a Science and as a Theological Discipline*(New York: Anson D.F. Randolph, 1894). 오직 각 주(註)가 들 뿐인데 T.D. Bernard(p. 19)와 K.F. Nösgen(p. 35)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7) By the Rev. Abraham Gosman.

8) *Op. cit.*, p. vii 1891.5.1에 모인 교수회록에는 다음과 같은 추천사항이 있다. “교수회는 이사회에 제시할 것인데, 즉 교수회의 판단으로는, 성경신학의 교수직의 이 신학교에 설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 그것에 대한 점차적인 증대성은 성경신학이 분리된 학부로 따로 세워져야 하며 따로 독립된 교수의 전담 사역이 있어야 한다. 신학교에 우호적인 친구들이 신규로 설립되는 교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충분히 충당하도록 약속하였다(Princeton 신학교 사서인 Charles Willard가 최낙재씨(1972. 5.24)에게 쓴 편지) —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재학생, 현재 합동 신학원 교수 — 역자주.

9) 참조, Hodge의 출판된 강의 노트, *Gospel History*(Princeton: Charles S. Robinson 1876) 그리고 *Apostolic History and Literature*(Princeton: C.S. Robinson, 1887).

10) *Systematic Theology*(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71] 1893) I, if. 필자가 발견한 대로로는 이것이 Hodge가 성경신학에 대하여 유일하게 언급한 것이다.

한 작은 분과(sub-branch)로 보는데, “이는 성문서에 그 진리들의 충만한 표현이 되기까지 모든 지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나타난 진리를 여러 요소들의 점차 진전해 가는 것을 추적하며, 또 각 영감된 저자가 제시하는 여러 진리가 포함된 독특한 형식과 연결을 밝혀 내 보이고 있다.”¹¹⁾ 그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를 건드리지도 않는데 이는 어쩌면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지적한대로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어느 정도 주제별 배열에 따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성경신학은 그의 신학적 방법에서 분명히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고 있다.

B.B. Warfield는 좀 더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가 조직신학의 개념에 관하여 1896년에 (그러니까 Vos가 취임한지 2년 후에) 글을 썼는데, 성경신학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면서, 또 성경신학이 가지는 조직신학과의 관계를 어느정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¹²⁾ 성경신학은 주경신학(exegetical theology)의 총화적인 면류관이며, “마지막 말”(p. 67), “주경학(Exegetics)의 잘 익은 열매”(p. 65)이다. 그와 같이 성경신학은 조직신학과 대립 또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조직신학의 토대(basis)와 근원(source)이다”(p. 66) “학문다운 신학은 성경신학이 마련한 석의(exegesis)의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의존한다”(pp. 735) 그러나 그의 언급은 본질적으로 볼 때, 형식적이라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결핍된 것은 성경신학의 정의나 또는 그것이 꼭 필수적으로 가해져야 할 설명인데, 이는 “성경신학에 결들인 역사적 요소”(p. 68)에 관한 엇비슷한 언급보다는 낫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그 방법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없는데, 그 방법 속에서 성경신학이 마련한 총화(synthesis)가 조직신학의 토대이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¹³⁾

11) *Outline of Theology*(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870), p. 22.

12) “조직신학의 개념” *Studies in Theolog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pp. 65-68, 73-74. 또 p. 74에 있는 각주 ⑨에 있는 도표를 보라.

13) 이 때와 그 이후에의 미국의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형편을 광범하게 조사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신학 백과사전 또는 신학 서론이 제시된 여러 곳을 조사한 결과 필자가 발견하기로는 남부의 신학자인 Thornwell, Dabney 그리고 Girardeau는 성경신학에 관하여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마치 L. Berkhof와 J.O. Buswell, Jr.과 같이, W.G.T. Shedd는 특히 교의학과의 관계면에서 성경신학을 볼 때 거의 무시대는 태도를 취한다(*Dogmatic Theology*[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8], I, 11-14). 이러한 모습과는 예외적으로 중요한 학자는 Shedd의 동료인 Charles Augustus Briggs인데 그는 1890년 뉴욕에 있는 Union 신학교에 새로 설치된 성경신학 과장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Briggs는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비평적” 견해를 취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성경신학, 성경교의학, 조

Vos는 Abraham Kuyper와 Herman Bavinck의 저서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학자들은 그 당시 화란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신학자들이었다. 그러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서양 이쪽에 있는 북미 대륙의 경우에서와 같이 성경신학에 대하여, 분명하게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라고 하겠다.

1894년에 쓴 글에서 Kuyper는 성경신학이란 이름 뿐만 아니라 그 개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¹⁴⁾ 그가 신학을 정의하는대로는, 신학이란 조직된 교회의 삶의 산물로서 교리(dogma)를 전제하며, 이 둘도 역시 서로 완성된 성경을 전제하고 토대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성경에는 신학이 없다. 신학은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Kuyper가 계시 역사에 대한 개념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하면서도 성경신학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성경신학에 관한 Vos의 관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Bavinck는 성경신학에 관하여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의 교의학(Dogmatiek) 속에 특별계시를 다루는 곳에서 그가 말해야 하는 점이 성경신학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¹⁵⁾ 특별계시의 내용에 관한 한, 그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1) 역사적이며 점진적이고 (2) 행위는 물론 말씀과 교훈으로 이루어졌으며 (3) 구원론적(soteriological)이다. 또 그가 관찰하기로는 첫째, 두 가지 특성 즉 말하자면, 특별계시가 역사적으로 점진성인 점과 행동성을 지닌 특성은 지난 날의 신학자들에게서 보다는도 최근의 신학에서 더욱 더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¹⁶⁾ 다른 말로 표현해서 Bavinck에 의하면, 성경계시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은 그것이 구속사적(redemptive-historical)이며, 좀 더 일치된 관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Kuyper 경우보다는 Bavinck의 경우에서, 아마 Vos의 저서가 수평선 위로 더욱 더 부각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개혁주의 학자들을 간단히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적신학으로 3가지 구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oly Scrip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0), pp. 594-597), 그리고 성경신학은 축자영감설을 이치는 더 믿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

14)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heid* (Kampen: J.H. Kok, 1909), III 166-180. 내가 이 반대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논하였다. E.R. Geehan, ed., "게할더스보스와 바울의 해석" *Jerusalem and Athens*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1), pp. 229-231.

15)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J.H. Kok, [1906] 1967), I, 315-318.

16) 참조 *ibid.*, pp. 315f.: "De historia revelationis is eene wetenschap, die nog

로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즉 개혁주의 전통속에서, 성경신학의 개념 정립에 관해서는 Vos보다 앞선 분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저서는 창조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개혁주의 신학에 신선한 충격을 주입한 것이다. 성경신학의 개념이 어떻게 정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Vos가 성경신학 교수로 임명된 사실, Warfield의 좀 더 형식적인 거론, 그리고 Bavinck와 Kuyper의 실질적인 관심 등을 적어도 Vos가 나아갈 방향을 최초로 인정하는 셈이며 동시에 그 중요성도 확인된 셈이다. 우리가 짐작컨대, 이러한 움직임을 틀림없이 자신의 저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데, 말하자면, 그 때까지의 정통주의 신학이 성경의 역사적 특성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평적" 비난이 일리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일이 있는데 이는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전통에서 성경신학의 구체적인 개념으로써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의 관계를 논하려는 약간의 시도가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Murray교수 혼자만이 이 분야의 연구에 정성을 쏟은 것 같다. 그의 배경설명에서 그 태도에 관해서 Vos를 언급한 만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함께 여기서 다룰 수 있다.¹⁷⁾ 그런데 그리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 강조되었던 점이 지금도 더욱 분명히 재삼 확인해 두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비교적 새롭다는 것을 반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 이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적이고 또 백과사전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아, 아직 표면화 되지 아니한 여러가지 다양

van jonge dagteekening is en op ernstige beoefening aanspraak mag maken" (계시역사는 최근에 나온 과목이며 진지한 연구를 촉구할 것이다.).

17) Vos의 입장은 대부분이 두 곳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앞에 말한 그의 취임 연설 *op.cit* n.6에 있고 또 하나는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61) 서문 pp. 13, 24ff.; 참조 pp. 25-27.에 있다.

E.P. Clowney가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61), p. 16에 이 관계적 문제를 약간 다루었다. 참조 역시 E.J. Young "구약 성경신학이란?", *The Evangelical Quarterly* 31(1959), 139f. 참조 p. 53. 그리고 *The Study of Old Testament Today* (London: James Clarke, 1958), p. 110; F.H. Klooster, *The Adjective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1963), pp. 18-21; J.O. Boyd "연구와 강단에서의 성경신학" *The Evangelical Quarterly*, 2(1930), 71 (The Banner of Truth 146 [Nov. 1975], 1f에 조금 줄였음) 여기에 언급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W. D. Jonker 등이 편집한 *Hermeneutica, Erebundel aangeboden aan prof. dr. E.P. Groenwald* (E.P. Groenwald 교수에게 증정하는 기념 논문집) (Pretoria: N.G. Kerkboekhandel, 1970) pp. 157-179에 W.D. Jonker가 쓴 도전적인 기사 "Eksegese Dogmatiek" (주경학과 교의학)이란 글을 내가 우연히 발견하였다.

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또 그것은 여기서 다루어 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좀 더 확대 성숙하고 또 일치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II

Murray는 성경신학이란 “주경신학(exegetical theology)의 한 분파로서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발전 과정을 취급한다”¹⁸⁾고 정의하므로 그의 스승을 따르고 있다. “성경신학”이란 용어에 거부감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두 사람은 “특별 계시역사”¹⁹⁾란 이름을 좋아한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에 비추어 보아 그들의 근본 입장을 이렇게 집약할 수 있겠다. (1) 그 두 사람에게는 특별계시는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별계시의 역사적 성격은 계시로서 그것에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며, 계시와 역사 사이에 일종의 긴장이나 단절도 내포하고 있다. (2) 그 두 사람에게는 학과목이라는 면에서 성경신학은 성경 “배후의”(in back of)²⁰⁾ 실제 계시적 발전과정이다 관심을 두며, 성경적 문서가 나오는 것은 그 일부이다. 특별계시의 역사적 점진성과 구별된 특성, 그 역사적 다양성 및 복잡성에 초점이 있다. (3) 방금 인용된 정의에는 명백하지 않는 반면에, 계시의 발전 과정의 유기적 특성을 그 두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 발전 과정은 지속적인 자기 교정(self-correction)을 함으로, 이질적(heterogeneous)이 아니다. 또 그것은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에서부터 비교적 좀 더 순수하고 온전한 것으로 진화되어가는 운동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예를 들자면, Vos는 온전한 씨앗에서 온전한 나무나 꽃으로 성장하는 모형 즉 성장하는 식물의 유기적 모형을 반복하여 사용한다. 계시 발전과정은 시발적이고 잠정적인 것에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움직인다.²¹⁾ (4) 용어에 관하여 두 사람이 융통성을 보이고 즐겨 사용한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관심을 두어 온 (두 과목의) 관계 문제는 계시역사(또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계시의 성

18) Vos *Biblical Theology* p. 13. Murray “조직신학 : 둘째 논문” p. 33. 이 문단에 있는 논의를 좀 더 확대하고 자세한 자료(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Vos의 취임연설 전부와 *Biblical Theology* 서문과 제 1장 그리고 Murray의 글을 보라. 참조, Clowney, *op.cit* 제 1장, O.P. Robertson “성경신학의 전망” *Towards a Theology for the Future*, ed. C.H. Pinnock and D.F. Wells(Carol Stream Ill.: Creation House, 1971), pp. 65-91.

19) Vos, *Theology* p. 23. Murray p. 33.

20) 이것은 Vos 자신의 말이다(*Theology*, p. 13; Inaugural p. 8).

21) Vos, *Theology* pp. 15-17; Inaugural, pp. 16-24; Murray, p. 36. 참조 Vos, Inaugural, p. 24; “성경신학을 바로 정의 한다면, 계시의 역사적 계속성과 다양성 속에 초자연적 계시의 유기적 발전 과정의 전시(exhibition)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강조는 원래의 것임)

격)와 조직신학(교의학) 사이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본인으로서 이것 이 특히 유용한 관찰인 듯하다. 이는 상호관계라는 면에서 그것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신학”이라는 보통 명사를 사용하며 “성경(적)” 그리고 “조직(적)”이라는 뚜렷한 형용사를 사용함으로 생각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원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전자보다도 후자의 용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리한데, 이는 그것이 구획을 나누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병행되는 학과목들이, 다른 과목과 다소 독립적으로 각각 자기고유의 길을 가며, 또 필요한 때는 그 과목 자체의 “권리들”²²⁾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전체적으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관계에 대한 Vos와 Murray의 설명에 어느 정도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한편으로는 두 학과목을 확실히 양립할 수 있으며, 분명히 서로 독립되어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²³⁾ 이 견해에 의하면, 두 사람이 주석적으로 공통적인 근거를 가지는 배경을 거슬러서 학과목을 총화하고 협동하면서도 관심은 그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들을 보이는데 있다. 이것은 방법 또는 체계화하는 원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성경신학의 접근 방법은 역사적인 반면에 조직신학의 방법은 논리적인이다.²⁴⁾

전자는 계시를 활동 혹은 발전과정으로 취급하고 후자는 그것을 완료된 것(a finished product)으로 취급한다. Vos는 이 두 학과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예를 드는데 직선(성경신학)과 원(조직신학)을 그리는 차이로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두 사람은 두 학과목 사이에 특히 조직신학을 위한 성경신학의 중요성이란 면에서 명확한 관련을 지으려하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그들의 논리 전개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방금 언급한 구분을 지으면서, Vos는 즉시 다음의 설명을 덧붙임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인 점진선 상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진리의 여러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의 시작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조직화하는 과정의 시작들을 분별

22) 이것은 Gabler시대 이래 주로 일어났던 것이란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주의 풍토에서 여전히 만나는 독특한 사고방식에 부딪히는 점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연상하게 한다.

23) Vos *Theology* 서문 pp. 13, 24f.; 취임연설, p. 39; Murray, p. 33.

24) 이와 관련하여 “논리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재래적이다(마치 Vos가 “조직(신학)적”이란 말을 쓰는 것과 같이, 취임연설, p. 39) 학과목을 구별하는데 이런 형용사가 적절한 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확실하게 그 의도는 그 주제의 구조를 밝히려는데 있다(cf. Murray, pp. 40f., 44). 두 학과목의 공통적인 면을 묘사하면서, Vos는 두 과목이 성경적 자료를 “변형한다”(transform)고 말하는데 (*Theology*, pp. 23, 25) — 이는 용어선택에 만족할만한 것이 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해야 한다.”²⁵⁾ 다른 곳에서 성경신학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실례 가운데 그것이 “진리에다 새 생명과 신선함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데 이는 “성경은 교의학적 핸드북이 아니라 극적인 흥미로 가득 찬 역사책”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그점이 밝혀지고 나아가서 기독교 교리는 성경계시에서 유기적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따로 분리되어진 증거 귀절에 달려 있다는 인상을 성경신학이 시정해 나가고 있다.²⁶⁾

Murray는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에 필요불가결한 것”(p. 41)이라 하여 더욱 강조하여 이 주장을 설명하는데 여섯 페이지(40-46)나 할애하고 있다. 그의 논지의 핵심은 특유의 정확성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대로를 아래에 인용할 만 하다. (pp. 44f.)

조직신학은 석의(exegesis)와 결부되어 있다. 조직신학은 성경의 총체적인 증거를 성경이 취급하는 여러가지 주제별로 구성하고 종합한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정상적으로 착상되어 발전한 성경신학에 그 뿌리를 두지 않는 한 그 임무를 바로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조직신학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석의(exegesis)는 성경신학의 원리로 규제되어야 하는 요구로 말이암아 조직신학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처럼 생각될런지도 모르겠다. 그와 같은 주장은 석의와 조직신학에 다같이 중요한 철칙(canon)인 성경대비(analogy of scripture)의 원리에 어긋나는 듯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 실제로,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만이 그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Murray는 Vos가 피력한 관점들과 비슷한 두 가지 견해가 확실하다는 것을 실례를 들면서 설명해 간다(pp. 45f.), 첫째로, 성경신학 특유의 관심사인 계시 역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조직신학에도 도사리고 있는 추상화의 경향”을 분쇄하는 것이다. 둘째로 조직신학은 성경의 단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단일성의 진정한 유기적 성격을 밝힘으로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이 성경 본문을 성경적 및 역사적 맥락에서 이탈시키거나, 문맥과 관계없는 증거 귀절로 인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IV

지금까지 Vos와 Murray는 성경신학의 개념과 조직신학에 대한 성경신학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정도 일치하는지를 명백히 논한 줄로 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좀

더 예리하게 말해서 그 방향의 추진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가망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최소한 몇 가지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성경신학은 역사적 행위로서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직신학이 계시된 진리의 역사적 특성을 바로 다루도록 촉구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종종 지나치거나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다. Murray가 언제나 상존하는 위협으로 말하는 “추상화의 경향”은 좀 더 꼬집어 말하자면 비(非)역사화(de-historicize)의 경향, 즉 항목별로 배열하고자 하는 진술이라는 의미에서 비(非)시간적(timeless)형식에 도달하는 경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진술(statement)은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언어전달이) 주권적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역사 안에서 그의 구체적인 활동 전체를 구성하는데 없지 못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진술을 역사적, 언약적 동력(dynamic)을 모호하게 하며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인간 및 세상과의 관계에 결속력(integrity)이 결여되고 그 관계의 유용성과 의미도 잃게 된다. Vos는 “계시의 원은 학교(a school)가 아니라 ‘언약’이며” 또 성경은 교의학의 핸드북이 아니라 “극적인 흥미로 가득 찬 역사책”²⁷⁾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형식이 매우 놀라운 것이다. 즉 “...는 아니라 ...이다(not...but)”식의 구조는 공연히 형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전통적 정통주의 교의학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지식주의적 경향과 “비평적” 전통의 합리주의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Bavinck가 위에서 말한 것을 역시 또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데, 그는 계시의 구속역사적 성격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올바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의 신학에서는 대개 이점을 무시해 왔다는 뜻을 말하였다.

여전히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다가, 좀 더 정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이, 성경신학이 교회의 생명에 전체적 새로운 울려일으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까운 지난 날에 있어 온 종교개혁 이후, 최근의 경향들을 주로 바로 잡고 또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2세기에 이미 영지주의(gnosticism)에 생사를 걸고 반대함으로써, 그리고 구약성경 그대로를 굳건하게 전지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기독교 계시와 구원이 언약적이요 역사적인 성경을 가진 것으로 그 독특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잘 증거해 온 것이다. 이러한 투쟁과 그 해답에 대한 전례들이 이미 신약 성경 그 자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바울의 골로새서와 요한 1, 2서에도 기록되어

25) *Theology* p. 25.

26) *Theology* pp. 26f.; cf. 취임연설, pp. 37f., 40.

27) *Theology* pp. 17, 26; “하나님께서 계시의 내용을 교의학적 체계가 아닌 역사서 안에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확실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취임연설, pp. 37f.); cf. Clowney, op. cit., p. 15: “신학 사건의 형식이다”가 아닌.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 시초부터 어떤 필수적인 “성경적—신학적” 견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거의 처음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 왔을 찌라도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의문이 되는 것은 종교개혁 정통주의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개신교 교의학 그 자체가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또 다음에는 데카르트의 사고방식과 연합함으로써 개신교 교의학이 반대하려 했던 계시와 역사의 긴장 해소에 어느 정도로 말려들어 갔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몇 십년 동안에 아메리카 개혁주의 및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에 대한 거론이 Van Til박사의 사상을 중심으로 변증학 분야에 주로 집중되었다. 그와 같이 중요한 분야에 주로 집중되었다. 그와 같이 중요한 논의는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그가 성경신학에서 역사주의를 상대화하는 요인을 올바르게 밝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신학 토대에 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2)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에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이는 성경신학이 석의(exegesis)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Murray의 견해는 얼핏 보기에 성경신학과 조직 신학의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견해는 두 학과목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 자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열쇠 역할을 한다. 성경신학이 어떻게 석의(exegesis)를 규제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 문제인 두 과목간의 균형 유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석의(exegesis)와 조직신학에 가장 중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단일성(unity)을 고려함으로써 아마 가장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계시 그 자체로서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증거하는데, 이는 말씀과 행위로 그의 지속적인 언약의 신실성을 이루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그 매듭을 짓는다. 한 가지 중대한 면을 두고 말하자면, 계시의 모형으로서, 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 종말에의 (필요하고 충분한) 수단이다.²⁸⁾ 해석의 바람직한 초점은 본문의 주제 문제이다. 즉 그 역사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역사인데, 그것이 본문의 배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관한 견해와 함께 성경단일성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은 그 단일성이 구속—역사적(redemptive-historical)이란 점이다. 주어진

28) 성경의 형성은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 자기 계시의 기록을 영속시키고 전수시키는 것보다 다른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피고 있다. 계시 자체와 비교하여 성경의 형성이 목적에 수단과 같이 보인다”(Vos, 취임연설, p. 8; cf *Theology*, p. 13). Murray p. 42도 참조하라. “성경은 특별 계시의 완전한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형식은 계시 역사 전체 속에 있는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본문 이해를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맥락은 문학적 구조나 상호관계의 모형이 아니라 계시의 발전 과정 그 자체의 역사적 구조이다. 최종적인 분석에서, 성경대비(the analogy of Scripture)는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구별지어지는 유기체 속에 있는 여러부분의 대비(analogy)이다.

이것은 성경신학이 제기하는 실제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신학을 처음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성경신학은 새로운 것이란 인상을 종종 가지는데, 이 성경신학이 성경을 평범하게 이해하던 것을 뒤에 묻어두고 이제는 몇몇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간직된 세련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깊은 내실로 인도하는 학문이란 인상을 종종 갖는다. 그러한 신학적 특권 의식은 담보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을 크게 알잡아 보는 결과를 빚어내고 만다. 그러한 태도는 성경신학이 지닌 근본적인 해석학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특정 신학과목의 존재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해석자체까지도 위기를 맞게 된다.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석의 하나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다.

성경신학을 석의과정(exegetical process)의 한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 일지라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석의(exegesis)자체를 오해하게 된다. “성경신학”에서, 즉 성경 계시의 구속사적 성경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데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전통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맥의 원리, 성경대비(the analogy of Scripture)의 원리, 즉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가장 적절하고 빈틈없이 성경의 실재를 파악하고 적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석의(exegesis)는 성경적 신학적이어야 한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는 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 앞에서 Vos와 Murray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에 대하여 모호하게 이야기 한 요소를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그 모호성이 “성경신학”이란 표현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겠다. 탐구하고 계시함을 하는 연구들을 말할 수 있다. 그 실례는 포로시대 이후 선지서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 또는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혹은 더 넓게는 이사야 또는 바울의 신학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미에서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는 확실히 상호보완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방금 언급한 전문적인 연구는 조직신학의 좀 더 광범한 주제별 견해와 서로 관련을 꼭 맺어야 한다.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고지식한 생각이다. 또 조직신학의 관심사인 전체적으로 통일된 성경 이해를 하는데에 그 두 과목이 이러한 협조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그 두 과목이 정당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성경신학”이란 용어는 “성경적—신학적”이란 형용사를 강조함으로써 두번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 때 성경신학이란 어떤 특수한 학과목을 말하지 않고 좀 더 넓게 본문을 정확하게 석의(exegesis)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론적 토대와 과정에 관련된 성경에 대한 근본적 평가(assessment)를 말한다. 내가 바로 앞 문단에서 지적하려 한 바와 같이 이것은 더욱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조직신학과의 가장 깊은 유대를 알아볼 수 있다.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에 없지 못할 불가분의 관계는 석의(exegesis)가 조직신학에 없지 못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 “성경신학”이란 이름, 특히 그 형용사를 반대해 온 것이 통례이다.²⁹⁾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Vos와 Murray는 “특별계시의 역사”(History of Special Revelation)라는 이름을 더 좋아한다. 성경에 기록된 실제적인 계시 발전과정의 여러 부분에서 가끔적이면 이 명사를 적용하려는 타당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만일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을 반영하고 또 언약의 약속들과 그 성취에 대한 우선적이고 필연적인 적용이 교회와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짐을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신학 개념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전부는 아닐찌라도 그 대부분이 (어느 모로 보나) 신학이다. 사실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는 빈틈없이 “조직적”이며, 매우 신중하게 논리를 전개해 가는 신학이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점이 바로 연계성의 요인, 특히 신약과의 연계성을 잘 밝혀 주기 때문이다. 이 연계성은 교회 안에서 이어지는 신학활동을 확고하게 또 유기적으로 성경에다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결론 뿐만 아니라, 그 시발에 관한 질문에도 성경에 의하여 결정하게 한다. 개혁신학은 그 서론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시종일관된 의식을 가지고 개혁신학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Vos의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의 취임 연설에서 아마도 Kuyper의 영향을 입어서, 그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배경을 약화시킬지라도, 성경 계시에 “신학”이란 말을 가장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배경할 뿐이다.³⁰⁾ 결과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르치고 글을 쓴 다음에, 그는 아주 거침없이 바울의 신학과 종말론³¹⁾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³²⁾의 계시사의 신학과 철학을 말하는데 이는 조직화 과정의 시작이

29) 참조, 그 일례로 Vos, *Theology* p. 23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직신학”이란 말의 형용사에 대하여도 역시 반대를 제기할 수도 있다. “조직적” 또는 “논리적”란 말은 그것을 특징지우는 주제적 방법을 밝히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30) 취임연설 p. 34.

31) *The Pauline Eschatology*(Grand Rapids: Eerdmans, [1930] 1961), pp. 11, 29 등등.

32) “히브리서, 언약의 서신”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4(1916), 3.

성경에서 이미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하여서이다.³³⁾

계시의 실제적 발전과정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종결된 것으로 결론짓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것은 특별히 신약에서 그러할데 신약 성경신학의 프로그램을 밝힘으로써 알려질 수 있다. 구약 성경신학과의 차이는 대충 살펴봐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즉 신약은 한 세대 동안에 쓰였고, 1세기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비롯된 반면에, 구약은 1천년이 넘도록 구성되었으며 또 상당히 긴 세월을 취급한다는 사실이다. 계시 역사 전반에 관한한, 신약은 발전과정의 종결점(end point)에 관심을 갖는 만큼, 발전 과정이나 지속적인 발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데, 이들은 필연적인 구약구조의 특징들이다. 이것은 점진적 요소가 신약에 현존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거쳐서 교회의 창설까지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으로 유대에서 그 인근 이방세계에 교회가 퍼져나가기까지 점진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점진성은 복음 메시지의 중심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신약 계시 구조에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양하고 동시대적(synchronous)인 증거인데 그리스도는 그의 높아지신 점(exaltation)에서 볼 때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자아 계시이다. 신약 자체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 지혜(엡3:10)의 구현이며, 이 다양한 지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관한 것이요, 여러 지난 세대(ages)에 감춰져 졌다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으며, 모든 민족에게 알려 졌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감되는 비밀에 관한 것이다(8, 9 참조 2-6; 롬16:25, 26; 골1:25-27 엡1:10)

계시 역사가 완결된 기록으로서의 신약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순절 이후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증거라는 면을 숙고하게 한다.³⁴⁾ 그러나 계시 발전 과정의 유기적 성격에 비추어, 그 변화와

33) *Theology*, p. 25. 이런 뜻으로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그가 본래부터 꺼리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Theology* p. 23에서 “성경신학”이란 명칭을 반대함으로 그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겠다.

34) 이 점은 Vos에 의하여 지적되었다(취임연설, p. 21), “내가 잠시 비추어 말해야 할 계시의 유기적 특성에 관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역사적인 점진성은 영원한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밝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이것과 병행하여,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원된 교훈의 놀라운 복합성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다. 계시의 역사적 줄기를 따라서 뻗어나오는 가지들을 볼 수 있는데, 종종 한꺼번에 하나 이상으로 나와 각각 자기의 부위에서 그리고 독특한 방법으로 진리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p. 23의 하단에서 그가 말하는 논지의 나머지 부분을 참조하라. Vos 쓴 것은 풍부한 번식에다 특별히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시의 발전 과정상 신약의 종결점을 특징지우고 있다.

다양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단일성과 시종일관성에 관한 배려와 필요로 관련되는데 그 안에서 그 다양성이 구성되며, 그것을 떠나서는 그 다양성은 결국 알 수 없는 것이다.

다시 계시역사의 유기적인 본질에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배려들에다가 그 풍성하고 다양한 구약의 근원에 유의하지 않으면, 신약 종결점(end point)에의 명확한 신학적 다양성 속의 단일성을 올바르게 또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 통상 신약(성경) 신학으로 불리워진 것과 조직신학 사이에 존재하는 선(線)은 추적하기 힘들게 된다.³⁵⁾

“조직신학”이란 말에 대해서 제기되어질 수 있는 반대에 비추어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모든 점이 전적으로 알맞지는 못할지라도 최상의 제안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교의학)을 가리키기 위해서 조직신학이란 말을 사용하던 것을 더 계속하지 말고 대신에 “성경신학”이란 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주제별 구분은 충분히 여유있게 남아 있으면서, 조직신학의 기초가 되는 구속사적으로 규제된 석의(exegesis)의 결과를 수용하는 여유까지 있음을 언제나 보장하는 길이다. 본인으로서, 이것이 본고에서 제기된 두 학과목간의 관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관계를 계속 말하면서, 계시사적인 맥락에서 보여지는 계시의 풍부한 가능성을 조직신학에게 제공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임무이며, 조직신학의 구축과 형성에 이러한 가망성들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조직신학의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⁶⁾ 사실로 현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여기에 다만 간단히, 한 가지 면으로만 실례를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하며 그 결과는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일 구속사적 의미의 성경 해석이 도달한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종말론이란 각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는 중간상태 및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상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교회의 현재

35) 이와 관련해서 Warfield가 한 말을 “그리스도의 인격” *Biblical Doctrin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pp. 175f에서 참고하라. 특히 다음과 같이 보는 견해(p. 176)를 유의하라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신약은 소위 생서적인 취급보다도 소위 교의학적인 접근에 좀 더 쉽게 맞추고 있다……”

36) 양 쪽의 책임을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영여 세계에서 겨우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성경학자들이 교의학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불확실한 태도로(역사 비평적 방법론과 전제에 대하여 다만 소박하고 조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징조가 점점 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목회자와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교리적으로 무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상태를 포함해서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⁷⁾ 이는 놀라운 안목인데 이는 종말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인정받아 온 기독교, 구원론(이미 이룩하여 적용되는) 교회론과 같은 다른 과목의 재 정립을 요청한다. 이것은 단순히 학적인 관심사만이 아니다. 현재 교회의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좀 더 깊은 의미와 좀 더 만족할 만한 체험을 찾아 추구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개혁주의 교회가 지식주의와 경건주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개혁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불안한 혼란을 배격하는 다른 요인들과 여러가지 안정되지 못한 복합요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신약에서 볼 수 있는 태도와 생활 양식보다 더 진지한 것이 요청되는 것은 없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사도들을 이해하되 “그들에게 두 세상의 끝(the ends of the ages)이 만나는”(고전 10: 11) 사람들로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나라의 백성이 된 체험을 하고 있는가?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중간기간 동안에 지상 교회의 존재가 이 세상(this age)과 오는 세상(the age to come) 사이에 걸친 긴장으로 결정되는 엄청난 암시적인 의미를 다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신학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여러 방면에 걸친 전체 교회에 필연적인 관심사가 달려 있다.

37) 그것은 Vos의 공로로 돌려야 하며 이는 또한 그의 방법이 옳다는 것인데, 그는 자기 당대에 몇몇 극소수의 학자들과 함께 예견한 것으로, 20세기 중엽까지는 신약 해석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적어도 공적으로 일치하였던 점이다. 참조 특히 *The Teaching of Jesus Concerning the Kingdom and the Church*(Grand Rapids: Eerdmans, [1903] 1958) 그리고 “바울의 성령 개념의 종말론적면”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Princeton 신학교 교수 지음)(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2), pp. 209-259